

금석배 전국고교축구 '킵오프'

내달 3일부터 13일간
월명종합경기장 등서
3년만에 유관중 개최

군산시는 2022년 금석배 전국고등학교 축구 대회가 오는 6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월명종합경기장 외 보조경기장 등 5개 구장에서 개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석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는 전국 40개 팀이 참가 확정됐으며 무관중에서 유관중으로 전환하는 등 일상회복에 맞춰 대회를 준비한다.

관중 입장은 가능하지만 경기장 및 화장실 등 주요시설의 경우 소독 등 중간 방역을 실시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스포츠경기로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숙박 및 식품위생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가격 정찰제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2020년 우승팀인 대전유성생명과학고, 2021년 우승팀 평택진위FC, 서울경신고, 서울중앙고, 경기 KHT일동, 전북 이리고, 군산제일고 등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채금석 선생 기념비

팀들이 출전해 우승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석배축구대회를 발판으로 각종 전국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회 유치 준비를 통해 건강한 일상회복의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군산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이상 스포츠대회는 총 4개로 금석배축구대회, 프로복싱, 새만금인라인마라톤대회, 전국중고등학교 골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장애인사이클 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들도 건강한 일상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스포츠과학센터는 미래 스포츠과학연구원을 꿈꾸는 도내 대학생들을 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래 스포츠과학연구원의 꿈'

전북스포츠과학센터, 도내 대학생 현장 체험 프로그램 진행
한일장신대 운동처방재활학과, 센터 찾아 이론·실기 병행

전북스포츠과학센터(과학센터)가 현장 체험의 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과학센터는 미래 스포츠과학연구원을 꿈꾸는 도내 대학생들을 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포츠 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최근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들이 전북스포츠과학센터를 찾아 이론과 실기를 병행했다.

교육은 과학센터의 역할과 전문장비 체험을

통한 평가 데이터 분석 등이 이뤄졌고, 연구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스포츠과학 분야 관련 진로를 모색했다.

전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도 현장 체험을 통해 스포츠 과학 분야를 접할 예정이다.

과학센터는 앞으로도 현장 체험을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란 센터장은 "체계적인 스포츠 과학이 뒤따라야 한국 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장체험 기회를 확대해 훌륭한 연구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KCC 입단 허용 "처음부터 데이원행은 생각 안 해"

"계약때 아버지가 좋은 조언 해주
온 만큼 책임감 있게 뉘 생각"

프리미어리그(FA) 자격을 얻어 전주 KCC에 합류한 허용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동행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허용은 24일 서초동 KCC 본사에서 열린 입단식 후 기자회견에서 "사실 처음부터 데이원행은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2022시즌 종료 후 고양 오리온을 인수한 데이원자산운용이 허용의 아버지인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을 구단 최고책임자로 데려왔다.

때마침 허용이 FA 시장에 나오면서 농구계를 대표하는 부자(父子)가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허용은 현재 아버지가 몸담고 있는 데이원자산운용이 아닌 과거 아버지가 감독으로 지냈던 KCC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 5년에 첫 시즌 보수총액 7억5000만원(연봉 5억5000만원·인센티브 2억원)을 받는 조건이다.



FA를 통해 전주 KCC 이직에 입단한 허용이 24일 서울 서초구 KCC 본사에서 열린 입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허용은 "KCC와 계약을 고려할 때 아버지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KCC에 계

셨으니 그랬던 것 같다. 간단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말도 (계약에)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허 전 감독 역시 아들을 데려오게 그리 적극적으로는 없었다. 허용은 "아버지의 제안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에 "그런 건 없었다"면서 "같은 팀이 된다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고 잘라 말했다.

KCC는 허 전 감독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지휘봉을 잡은 팀이다. 직접 선수로 뛰는 것은 처음이지만 이런 이유 때문인지 허용에게 그리 낯설진 않다.

사실 허용은 훨씬 전 KCC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다. 2014년 신인 드래프트에 나섰지만 당시 KCC 감독이었던 허 감독은 아들에게 지명권을 할애하지 않았다.

허용은 "2014년 드래프트 때 아버지가 안 뽑았지만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다. 지금이라도 KCC에서 뉘 수 있어서 좋다. 온 만큼 책임감 있게 열심히 뉘 생각"이라고 활짝 웃었다.

/뉴시스

장수 장애인탁구, 슬로베니아서 '선방'

오픈대회 참가 이근우, 女복식 3위

장수군장애인체육회는 슬로베니아탁구협회와 슬로베니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한 '2022 슬로베니아 오픈대회'에 참가한 이근우 선수(장수군장애인탁구단)가 여자복식 3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최근 슬로베니아 라스코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장수군장애인탁구단이 국가대표 랭킹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참가했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탁구선수단이 2022년 장애인탁구 세계선수권대회의 쿼터, 포인트 점수를 획득하고 국제대회의 경험을 쌓아 2024년 파리패럴림픽에서 다시 한번 메달획득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북도 및 장수군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참가한 대회에서 여자복식 3위를 기록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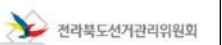
장수군장애인탁구선수단은 향후 7월 태국 파타에서 개최되는 오픈대회 참가 등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으로 연기된 중국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과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 대비해 국제무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장수=고환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

•투표소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사전투표소 변경 | 서울역 >>> 남영동 주민센터 | 용산역 >>> 한강로동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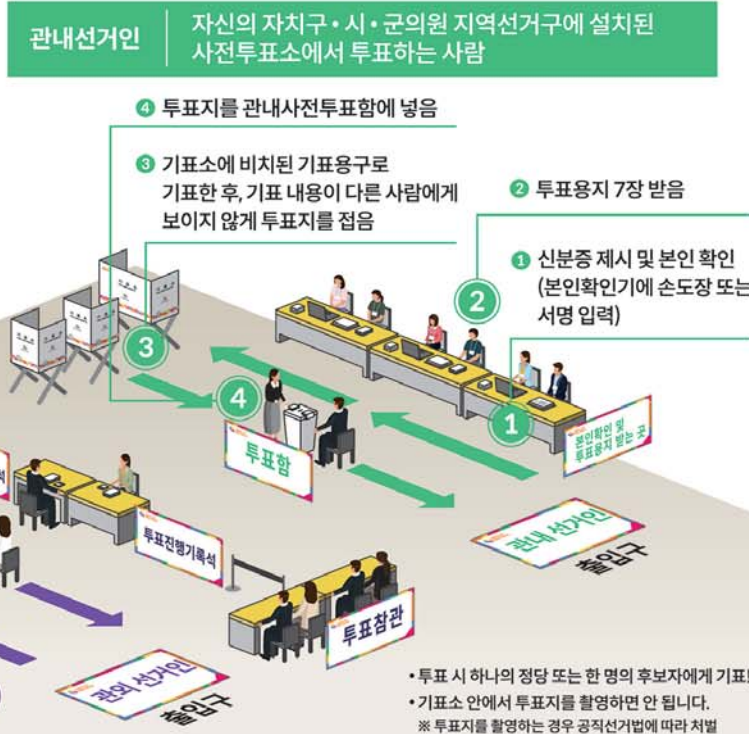
일시 5월 27일(금) ~ 5월 28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28일(토) 오후 6시 30분~오후 8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준비물 신분증과 마스크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 등

관외선거인 | 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

-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
- 2 투표용지 7장과 회송용봉투 받음
-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 4 회송용봉투를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장



※ 교육감선거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니 후보자 이름 확인

유효표와 무효표 예시

